

<나는 귀신> 독후 활동지



고정순 글, 그림
불광출판사 | 38쪽 | 초등1~2학년
우리 아이 인성교육 시리즈 14

“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고,
셋이 모두가 되게 하는 사랑과 우정에 관한 이야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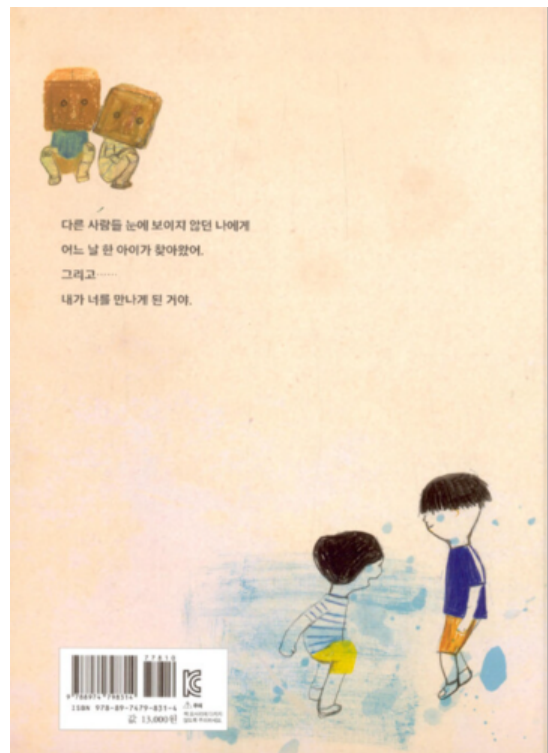
표지 관찰하기



• 표지의 두 친구 중 누가 귀신인 것 같나요?
그 귀신은 어떤 귀신일까요?

• 왼쪽 아이의 눈은 머리카락에 덮여 보이지 않네요. 아이는 왜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걸까요?

• 뒤표지에는 또 다른 아이가 보이네요.
이 아이는 누구일까요?



활동2 나는 점점 사라져

이 책에서 주인공 아이는 점점 '사라져' 갑니다.
친구들이 이름을 불러 주지 않을 때, 부모님이 목소리를 들어 주지 않을 때 아이는 사라져 가죠.
여러분도 스스로가 '사라져' 간다고 느꼈던 적이 있나요? 언제 그렇게 느꼈나요?

다음은 멕시코의 전통 명절 '죽은 자의 날'을 소재로 한 영화 <코코>에 대한 글입니다.
이를 읽고 아래 질문에 답해보세요.

주인공 소년 미구엘은 우연한 사건으로 '죽은 자들의 세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은 오싹하고 무서운 곳이 아닌 모두가 신나게 노래하고 춤을 추는 멋진 곳이었지만,
'이승에서 잊혀 가는'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승의 사람들에게 잊힌 사람은
점점 투명해지다가 결국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져 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 <나는 귀신> 과 <코코>에서, 잊혀 가는 것은 곧 '사라져 가는 것'이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 <코코>의 영화 주제가 제목은 '기억해 줘'입니다. '기억해 줘'를 책 속 아이의
말로 한다면, 다른 어떤 말이 될 수 있을까요? 문장으로 풀어 써도 좋습니다.

활동3

나도 전염돼 볼까?

여러분은 '전염'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아마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힘들게 했던 코로나19 전염병이 떠오르겠지요.
하지만 '전염'에는 '좋은 전염'도 있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전염'이라는 단어에는 코로나 같은 질병이 옮는다는 뜻 외에도
'다른 사람의 습관, 분위기, 기분 따위에 영향을 받아 물이 둠'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웃음도, 사랑도, 우정도, 전염될 수 있는 것이지요.
혼자였던 아이가 귀신 친구를 만나 둘이 되고, 둘은 새로운 친구를 만나 셋이 되고,
셋의 모습을 바라보던 친구들이 모여 모두가 된 것처럼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이처럼 '좋은 전염'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내 가족, 내 교실, 내 학교, 내 마을... 공동체의 크기를 점점 넓히며 떠올려 보고,
생각나는 한 가지를 써 봅시다.

지금 우리 곁의 어딘가에도 사라져 가는 이웃이 있을 거예요.
책 속의 귀신 친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곁의 사라져 가는 이웃에게 먼저 손 내밀어 봐요.
아래의 신문 기사를 읽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일도 좋습니다.

"가슴 시린 이웃 위해 사랑 버무렸어요"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진다'라는 새마을 부녀회원들은 매년 이맘때가 되면 가슴 시린 이웃을 위해 솔선하여 팔을 걷습니다. 양념 한 켤, 정 한 켤, 웃음 한 켤을 담은 회원들. 이날 새마을 부녀회는 배추 300포기를 담가 소외이웃 80세대에 전달했습니다. [출처] 새성복신문

“바자회 열어 어려운 이웃 도와요”

광운초등학교 전교생 605명이 소외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성북구에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기부금은 지난해 교내에서 진행한 바자회를 통해 마련한 것으로, 각자가 쓰지 않는 새 물건, 쓰던 것이지만 새것 같은 물건 등을 가져와 나누고 판매해서 기부금을 모았습니다. [출처] 북부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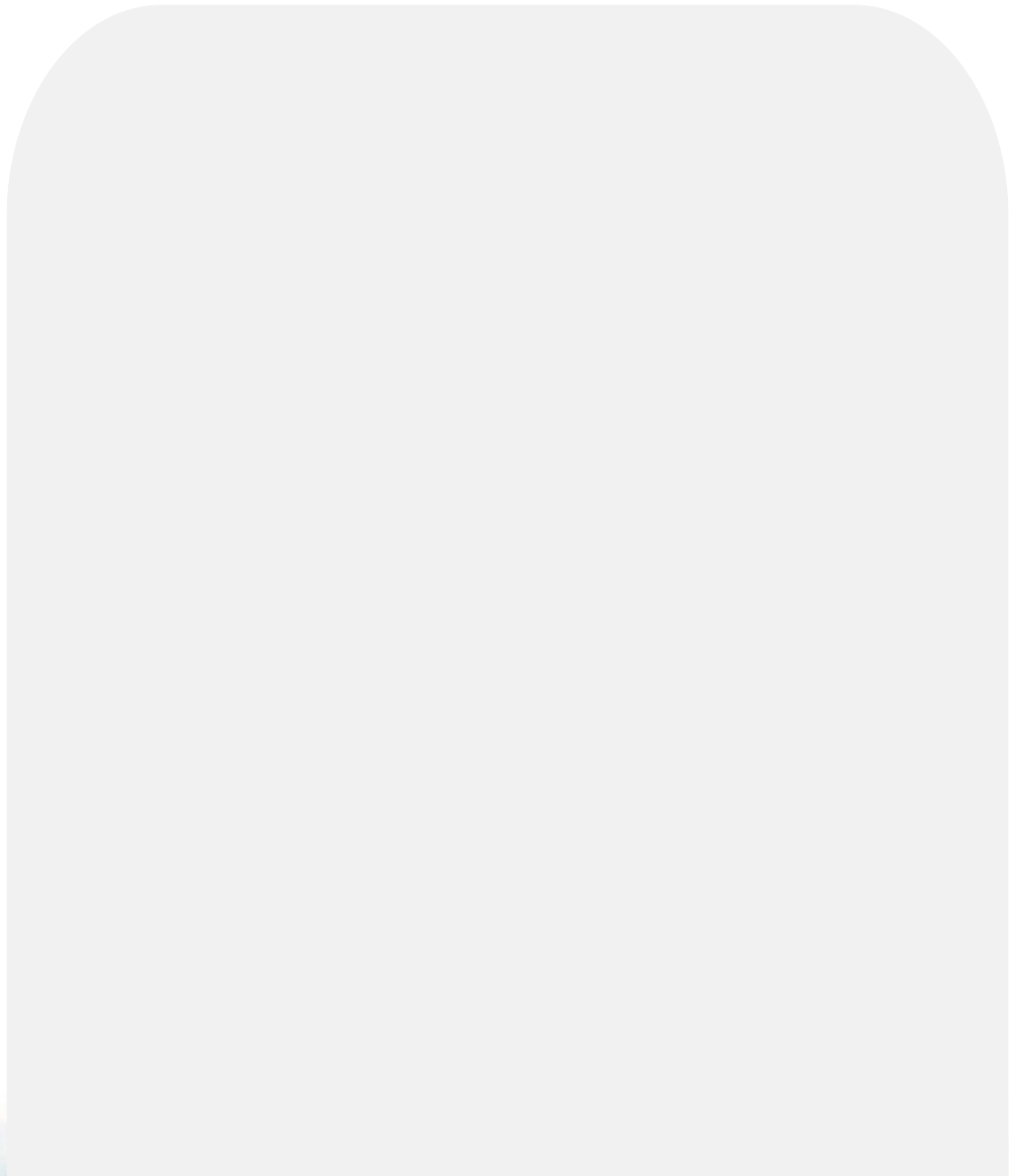
활동4 나의 귀신 친구

여러분에게도 상상 속의 귀신 친구가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책 속에는 다양한 모습의 귀신들이 등장합니다.

묘기 부리는 달걀귀신, 스케이트보드 타는 소복 귀신, 뜨개질하는 파란 귀신…….

여러분의 친구가 될 귀신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상상해 그려 봅시다.



활동5 상상과 놀이에는 힘이 있어

책 속의 아이는 귀신 친구와 함께 깜깜한 밤하늘을 날기도 하고,
사람들을 깜짝 놀래기도 하고, 신나게 시소를 타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귀신 친구가 생긴다면 어떤 놀이를 하고 싶은가요?

현실 속에서 상처받고 혼자가 된 아이는, 상상의 세계를 선택해요.
그곳에서 귀신 친구를 만나 신나게 놀지요. 그 덕분에 외롭고 쓸쓸한 방에서 나와,
세상에 마음을 열고 친구와 함께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지요.

상상과 놀이에는 현실을 치유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상상하고 놀이하며 세상과 마주할 나만의 준비를 하지요.
여러분은 때때로 세상에서 내가 사라져 간다고 느낄 때,
숨고 싶고 웅크리고 싶을 때, 어떤 놀이를 하나요?
또는 어떤 상상의 나라를 펼치나요? 여러분의 멋진 세계를 소개해 주세요.

활동6 찾았다! 네 표정

주인공 아이의 얼굴은 앞머리가 눈을 꼭 덮은 채, 표정은 시종일관 보일락 말락 하지요.
하지만 모두와 함께 어울리고 있는 마지막 장면에서, 활짝 웃는 얼굴을 보여 줍니다.
아이에게는 얼마나 다채로운 표정이 있었을까요?
아이는 또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 상상하며 아래에 아이의 표정을 그려 주세요.

